

전근대 한일 양국의 여성담에 관한 소고*

— 조선후기 야담과 우키요조시(浮世草子) 속
이색적(異色的) 여성상을 중심으로 —

고 영 란**

youngrankoh@hanmail.net

〈 目 次 〉

1. 서론	2.2 이색적 여성의 갈등
2. 이색적 여성의 성격	2.2.1 이색적 여성의 위상적 갈등
2.1 이색적 여성의 애정문제	2.2.2 이색적 여성의 경제적 갈등
2.1.1 유부녀의 간통 유형	2.2.3 이색적 여성의 성별적 갈등
2.1.2 기녀, 첩, 유녀의 감정 충실 유형	3. 결론
2.1.3 애육에 집착하는 유형	

Key Words : 이색(unique), 우키요조시(Ukiyozousi), 야담(Yadam),
여성상(woman's characters), 비교(comparison)

1. 서론

일본 근세기(近世期) 민중의 이야기를 대중화한 산문으로서 우키요조시(浮世草子)를 들 수 있다. 우키요조시는 평생 유흥에 빠져 사는 조닌(町人) 남성의 삶을 그린 이하라 사이카쿠(井原西鶴 : 1642-1693, 이하 사이카쿠)작 『호색일대남(好色一代男 : 1682)』에서 비롯되어, 출판사 하치몬지야(八文字屋)의 인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2-A00019)

**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HK연구교수, 일본문학 및 문화 전공

기 작가 에지마 기세키(江島其磧 : 1666-1735, 이하 기세키)에 이르러, 그 평이 한 문장을 통해 널리 보급되었다. 기세키는 우키요조시의 하위 장르인 가타기모노(氣質物)¹⁾에서 인물이 속한 신분, 직업 등에 요구되는 기존의 윤리 및 가치관과 부합하지 않는 성향을 띠는 이색적²⁾인 아들, 딸, 아버지의 모습을 그렸는데, 주인공들은 주로 경제적 부유함 속에서 특이한 개인적 취향을 드러내어, 골계화 될 수 있는 여지를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인물들을 가타기모노(氣質者)라고 부를 수 있고, 이들 가타기모노는 근세 후기의 게사쿠(戯作) 속 유형적인 인물과는 거리가 멀다 하겠다.

가타기모노(氣質物)의 인기는 당시에 유행했던 세책(貰冊) 가게의 보급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는데, 세책가게는 조선왕조에서도 후기에 보편화 되어,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소설도 널리 보급되었다.³⁾ 조선 후기 소설 속 인물은 비범하고도 초현실적인 성격을 지녀, 이 역시 유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이색적 인물상은 야담(野談)⁴⁾ 속 인물상을 답습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⁵⁾ 이에 가타기모노와 야담 속 이색적 인물상을

- 1) 인물을 위상, 직업 등의 유형별로 묶어 그 유형성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그린 우키요조시의 한 장르. 이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기세키의 『세켄 무스코 가타기(世間子息氣質: 1715)』, 『세켄 무스메 가타기(世間娘氣質: 1717)』, 『우키요 오야지 가타기(浮世親仁氣質: 1720)』 등이 있다. 이러한 가타기모노는 메이지기(明治期)까지 지속적으로 집필되었고, 쓰보우치 쇼요(坪内逍遙)의 처녀작 『도세이 쇼세이 가타기(当世書生氣質: 1885~1886)』도 가타기모노라고 할 수 있다.
- 2) 어떤 유형에 속하는 성질로부터 이탈된, 혹은 상이한 성격을 의미한다.
- 3) 일본 세책 가게에 대해서는 하세토모 지요지(長友千代治)의 『近世貸本屋の研究』(東京堂書房, 1982)에서 시사 받은 바 크다. 조선기의 세책가게에 대해서는 아래 논문에서 시사 받은 바 크다. 정명기(2003) 「세책본소설의 유통양상」, 『古小説研究』 16집, 한국고소설학회, pp.71-99, 정병설(2003) 「세책 소설 연구의 쟁점과 방향」 『국문학연구』 10집, 국문학회, pp.27-57, 전상욱(2008) 「세책 대출장부 연구1」, 『溯上古典研究』 34집, pp.9-65
- 4) 정명기편(2001) 『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 1』 보고사, p.12 「야담은 이야기꾼들에 의해서 이야기되거나, 또는 유식자에 의하여 문자화된다. 일단 문헌에 정착된 이야기는 또 다른 유식자에 의하여 轉寫되거나, 또 다시 구전되기도 한다.」(조희웅) pp.54-55 「그러나 한문단편의 경우 원래 작가의 허구적 창작의 산물이 아니라 구연되던 이야기를 글로 적어놓은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기록화 이전의 구연과정에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서사물의 능숙한 구연자인 ‘이야기꾼’들의 활동이 이조 후기로 내려오면서 상당히 활기를 띠어 전문적인 예능으로 발달하고 있었는데, 필자는 당시 ‘이야기꾼’의 활동양상을 講談師, 講唱師, 講讀師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파악해 본 바 있었다.」(임형택)
- 5) 조광국(2002) 『기녀담 기녀등장소설 연구』 도서출판 月印, p.14 「둘째, 기녀담의 기녀

비교하여, 그 의미하는 바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우키요조시는 다분히 작가의 창작 의도 하에 집필된 것인 반면, 야담은 향담(巷談)이나 야사의 취사 선택적 기록이라고 볼 수 있어, 상이한 두 장르에 묘사되는 인물상을 비교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키요조시 또한 전적으로 창작에 의한 것이 아니고 향담과 야사 등이 각 일화의 기초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 이에 반해 야담 또한 침삭 및 개변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⁶⁾, 인물상의 상이점을 조감하는 연구로서 우키요조시와 야담의 비교연구는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조선 후기 소설이 상당한 길이를 지니고 본격적인 줄거리를 지니는 점에 반해, 우키요조시는 야담의 일화(逸話)에 가까운 비교적 단편적 줄거리와 길이를 지닌다는 측면에서도, 우키요조시와 야담의 비교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야담 속 일부 여성은 남성에게 순종적이고 귀속적인 모습으로만 묘사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특이성과 의의는 한국한문학계에서 연구되기 시작하고 있다. 일례로 『천예록(天倪錄 : 17세기 후반 성립)』⁷⁾의 여성담에 국한하여 여성상의 성격을 분류한 이신성의 연구가 있다.⁸⁾ 그 결과 여성은 『천예록』의 여성상은 신분상승형, 위선자 폭로형, 신분 갈등형, 가부장제 도전형, 절대권력 대항형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유형은 당시의 여훈서(女訓書)에서 권장하듯

自意識 구현양상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기녀담은 기녀등장소설에 비해 이른 시기에 출현하여 기녀 자의식 구현의 단초를 제공해준다는 가치가 있다。」

- 6) 전개서 『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 1』 p.12 야담의 내용은 흔히 화자 또는 기록자의 기억 상실을 메우기 위하여, 또는 흥미 재고를 위하여 임의대로 침삭되거나 개변되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고 임의창작에 의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억 한 구석에 남아 있는 설화적 재산을 끄집어내어 혼입시키게 된다. 이처럼 설화적 요소에 창작적 요소가 쉽게 끼여들 수 있고, 또 양자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긋기가 어려운 까닭에 하나의 작품을 놓고 야담인가 소설인가 논쟁이 종종 야기되어왔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설의 발생 시기를 『삼국유사』에까지 올려 잡으려는 가설까지 제기되어 왔다.」(조희웅)
- 7) 김동욱, 최상은 공역(2003) 『천예록』, 명문당(이후 텍스트로 삼는다)에는 65, 66화가 게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여성의 간통과 남편의 우매함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 내용을 정환국역 『천예록』(2005, 성균관대학 출판부)에서는 담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김동욱, 최상은 역을 따른다. 그러므로 『천예록』에는 간통담이 수록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 8) 이신성(2001) 「『천예록』소재 여성인물야담성격의 연구」 『東洋漢文學研究』, 15호, 동양한문학회, pp.251-283

이 부모나 남편에게 순종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을 제일로 삼는 유형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 여성들은 서민층인 경우도 있지만 기녀·노비 등 하층민인 경우도 있어, 그녀들의 행위나 성격을 단순히 개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환언하자면 『천예록』의 여성담에는 당시 여성들의 신분과 경제적 한계로부터 야기되는 울분과 욕망이 묘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성들의 울분과 욕망은 조선후기 소설 속에도 계승된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그 특징이 두드러지는 것은 여성영웅소설이다.⁹⁾ 그리고 이러한 여성의 울분과 욕망은 가타기모노를 비롯한 우키요조시에서도 종종 묘사된다. 이에 야담과 우키요조시 속 이색적 여성상을 통해, 전근대 한일 양국의 여성담의 일면을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 연구대상은 다음과 같이 선별하였다. 우키요조시 중에서는 사이카쿠의 『호색오인녀(好色五人女 : 1686)』, 기세키의 『세켄 무스메 가타기(世間娘氣質 : 1715)』, 우에다 아키나리(上田秋成 : 1734-1809)의 『쇼도 기키미미 세켄자루(諸道聽耳世間猿 : 1766)』, 『세켄 데카케 가타기(1767)』를 살펴본다. 야담 중에서는 『어우야담(於于野譚 : 1622)』, 『천예록』, 『계서야담(溪西野談 : 1833-1839)』을 살펴본다.¹⁰⁾ 연구대상은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 작품 중 여성의 이색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서사되는 것을 선별하되, 『계서야담』은 그 주된 내용이 17세기-18세기의 실화를 엮었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연구대상 속 일본의 이색적 여성은 총30명, 한국의 경우는 총20명이다.¹¹⁾ 일본의 경우 우키요조시라는 본격적인 통속소설 장르 내에서 일정한 주제를

9) 정병현, 이유경 엮음(2000) 『한국의 여성영웅소설』태학사, p.265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집단인 여성의 욕구를 반영하고, 그 성취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 부류의 소설은 문학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략) 그런 점에서 실제의 모습과 달리 여성의 꿈을 형상화한 것은 일차적으로 문학의 존재 이유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

10) 이후 지면관계로 『호색오인녀』는 (호), 『세켄 무스메 가타기』는 (무), 『쇼도 기키미미 세켄자루』는 (쇼), 『세켄 데카케 가타기』는 (데), 『어우야담』은 (어), 『천예록』은 (천), 『계서야담』은 (계)로 생략한다.

11) 여성이 서사의 초점이 되는 이야기 중에, (호)는 100%, (무)는 76%, (쇼)는 26%, (데)는 50%, (어)는 26%, (천)은 100%, (계)는 14%에 이색적 여성상이 그려진다. 수치는 반올림하였다. (계)의 <일타홍 이야기>, <선천기 이야기>, <옥소선 이야기>는 (천)과 흡사하다.

면 작품이 출판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야담 속에서 그려진 이색적 여성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아니다. 이들 이색적 여성들은 특별히 애정문제와 관련하여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유부녀이지만 자의, 혹은 반타의적으로 간통하는 유형, 기녀·유녀이지만 자신의 사랑을 위해 감정에 충실한 유형, 자신의 애욕에 집착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 이를 우선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이색적 여성의 성격

2.1 이색적 여성의 애정문제

2.1.1 유부녀의 간통 유형

(호)2권에는 유부녀 오센(おせん)의 애정담이 전개되고, 그 대강은 다음과 같다. 미녀 오센은 다루야와 결혼하여 잘 살지만, 어느 날 고지야(翹屋) 주인 조자에몬(長左衛門)을 도와주려다가, 그의 부인으로부터 조자에몬과의 관계를 오해받는다. 조자에몬의 부인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오센은 실제로 조자에몬과 깊은 관계가 되고, 이를 남편 다루야가 발견하여 오센 가슴에 못을 박아 죽인다. 이렇듯 오센이 간통에 이르는 심리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자.

저런 질투가 심한 부인을 데리고 사는 것이야말로, 저 남자의 인과인가보다. 오센은 (조자에몬의 부인이 퍼뜨린 거짓 소문을) 고민스러워하면서도 참고 들으며 지냈는데, ‘생각해보면 볼수록 못된 마음씨이다. 이미 누명을 쓴 상태이니, 더 이상 시비를 가릴 수도 없고, 저 조자에몬님에게 정을 주어, 저런 여자의 콧대를 꺾어 버려야 진.’라고 생각한 후에, 특별한 마음을 쓰기 시작하여 곧 (조자에몬과) 정분이 나고, 몰래 편지를 나누며 동침할 날을 기다린다.¹²⁾

12) 麻生磯次·富士昭雄編(1983) 『対訳西鶴全集 好色五人女』, 明治書院, p.58, (이하 번역 및 밑줄은 인용자에 의하고 텍스트로 삼는다.) かかる格気の深き女を持ち合やすこそ、その男の身にして因果なれ。おせん、迷惑ながら聞き暮せしが、『思へば思へばにくき心中、とても濡れたる袂なれば、この上は是非にも及ばず、あの長左衛門殿に情けをかけ、あんな女に鼻をあかせん』と思ひそめしより、格別の心ざし、程なく恋となり、しのびしのびに申し交し、いつぞの首尾を待ちける。」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유부녀 오센의 간통은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 아닌, 복수심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센은 “일시적으로 장난쳐서 소맷자락을 잡아당기는 데에도 거침없이 소리를 질러, 그 (장난친) 남자가 (오센이 남녀간의) 정취를 모르는 것에 슬퍼하고, (이 때문에) 후에 그녀에게 말 거는 사람도 없었다.(かりそめにたはふれ、袖つま引くにも、遠慮なく声高にして、その男無首尾をかなしみ、後にはこの女に物いふ人もなかりき。)”¹³⁾라고 묘사되듯이, 결혼 전에는 남성에 대한 거부감마저 있는 순진한 여성이었다. 이러한 오센이 오해를 받아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며 간통이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처음부터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유부녀가 간통하게 되는 이야기는 (호)3권에도 등장한다.

유부녀 오산(おさん)은 대단한 미녀였다. 그녀의 남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데다이(手代:가게 관리인) 시게에몬(茂衛門)과 오산은 동침하게 된다. 시게에몬은 오산을 하녀 린(りん)으로 착각한 것이었다. 오해에서 비롯된 오산과 시게에몬의 관계이지만, 둘은 자살한 척 하고 남매 행세를 하며 숨어 살다가 결국 발각이 되어 처형당하고 만다. 이렇듯 오산이 간통에 이르는 과정을 다음 인용문을 통해 살펴보자.

‘그렇다고는 하지만, 아주 미운 놈이다. 세상에 남자 기쁨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린도 괜찮은 미모인데, 시게에몬 같은 정도의 남자를 설마 앞으로 못 갖겠느냐?’라며 거둬(시게에몬에게서 온) 편지 때문에 한탄하며, ‘시게에몬을 흘려 골탕 먹여야겠다.’라고 연애편지를 거둬(린 대신에) 쓰고, (중략) ‘결코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된 이상은 이 몸을 버려, 목숨이 붙어있는 한 유명해져서 시게에몬과 함께 죽어야겠다.’라고 더욱 (시게에몬과의 관계를) 관두지 못하고¹⁴⁾

오산은 하녀 린 대신에 편지를 써주고 시게에몬의 알미운 마음을 알아차리

13) 텍스트 p.50

14) 텍스트 p.74 『さりとは、憎さも憎し、世界に男の日照りはあるまじ。りんも大方なる生れ付き、茂右衛門め程なる男を、そもや持ちかねる事やある』と、重ねて又、文にして嘆き、『茂右衛門を引きなびけて、はませんと、かずかず書きくどきて、(中略)『よもやこの事、人にしれざる事あらじ。この上は身を捨て、命かぎり』に名を立て、茂右衛門と死出の旅路の道づれ』と、なほ止めがたく、』

게 되었는데, 린 대신 잠자리를 하는 척 하여 창피를 주려 하였다. 그러나 깜박 잠이 든 사이 시계에문과 잠자리를 갖게 되고, 그 결과는 죽음만이 남겨져 있다고 생각하며 죽음을 앞에 두고 오히려 걱정적으로 시계에문과의 사랑에 빠지게 된다. 앞서 확인한 오센과 더불어 오산은 ‘간통의 결과는 죽음뿐’인 ‘사회적 약자’가 되어 격정적인 심경변화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야담에서도 유부녀이지만 간통을 하는 여성이 (어)420화에서 묘사되니 이를 살펴보자. 한 상인(商人)이 비단을 팔러 왔다가 친정에 온 미모의 부인에게 미혹되어 간통하기에 이른다. 이 경우, 상인에게 매수된 유모가 부인을 속여 간통이 이루어지고, 부인은 끝내 자신이 간통 당한 사실을 모른다. 한편 (어)422화의 박엽은 젊은 시절 어떤 집에 들렀는데, 그 집 부인의 자태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간통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박엽과 여성은 ‘서로 기뻐하며 눈길을 주고받았다.’¹⁵⁾라고 묘사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호)의 오산, 오센보다도 한층 더 의도적인 간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궤를 같이하는 여성은 (천)65화, 66화의 여성들이다. 이들의 일화는 대단히 골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어)422화에서 간통담에서 박엽이 “소가 도망간다”며 여성의 남편을 속이는 골계적 전개와도 흡사하다. 일례로 (천)65화의 두 번째 여성의 경우를 살펴보자.

그녀도 셋서방을 데리고 방에 들어섰는데 본 남편이 밖에서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녀는 즉시 남편을 맞아 두 손으로 남편의 두 귀를 잡아 높이 쳐들고 나가면서 흔들다가 밀어서 뒷걸음쳐 가게하며 말하였다. “당신 어디 가려고? 어디 가는 거야, 당신?” 본 남편은 자기 아내가 애교 부린다고 생각하고 이런 장난을 아내가 하는 대로 맡겨두었다.¹⁶⁾

위와 같이 야담 속 유부녀의 간통담은 대체로 여성이 애초에 적극적으로 간통에 가담한 것으로 설정되었으나, 간통행위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고, 남편을 속이는 골계적 과정에 초점이 놓여있다. 즉 이색적 여성의 지략과 해학에 초점이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야담 속 간통녀들은 대부분

15) 신익철 외 3명 옮김(2004) 『어우야담』돌베개, p.622

16) 텍스트 pp.297-298

‘사회적 약자’이지만, ‘심리적 약자’가 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에 비해, 우키 요조시 속 간통녀들은 오해와 사고로 인한 ‘사회적 약자’가 되어, 격정적으로 심경변화를 일으켜 간통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2.1.2 기녀, 첩, 유녀의 감정 충실 유형

다음으로 사랑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겨야 할 기녀, 첩 혹은 유녀이지만, 사랑이란 감정에 충실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한다. (호)1권의 유녀 미나카와(皆川)는 세쥬로(清十郎)의 아버지가 유곽놀이를 반대하자, 격정적 상태가 되어 자살을 하기에 이른다. 그녀의 자살은 사랑 앞에서 유녀의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좌절적 현실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테)1.1의 첩이었던 하나조노(花園)는 사랑하는 남자와의 삶을 위해 경제적 안전성을 버리고 야반도주를 하지만, 그녀가 맞이하는 결말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낙담을 하지 마오, 세상에 녹이 없는 자는 없다는데”, “그것도 그렇군요”라며 포기하고, 부부는 찻집을 내고 대나무로 만든 의자에 화려한 시가라키 차를 마신다. (중략)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자 가난해 지고, (중략) 서로 떨어지지 않는 부부사이라며, 부러워하던 소문도 다 옛날 일이다.¹⁷⁾

위의 하나조노는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 주는 귀족의 첩이란 신분을 버리고, 사랑을 위해 한페이(半平)를 택한다. 그러나 그 결말은 ‘경제적 쇠락’이라는 좌절적 현실임을 위의 인용문은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테)3.2, 3.3의 유녀 후지노(藤野)는 유녀 적에서 헤어난 상태인데, 사랑하는 남성을 위해 다시 유녀가 되어 돈을 벌고, 그 남성이 죽은 이후 비구니가 되어 공양을 드린다. 후지노가 비구니가 된 모습은 작중에서 “평생 과부로 살아 사이타로의 사후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중국에서 쓰였다고 하는 열녀전에도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一生やもめで身をかため、才太

17) 森山重雄(1977) 『上田秋成初期浮世草子評釈 世間妾形氣』, 国書刊行会.(이하, 텍스트로 삼는다) p.195 「心おとすな世の中に無祿の人はないとやら、それもそうよと明らめて、女夫茶店の竹床几、ほんなりとした信楽茶。(中略)春過ぎて夏は来にけり瘦世帯。(中略)継目はなれぬ女夫中と、うらやむうわさも一むかし。」

郎が追善をねんごろにとぶらひしは、毛唐人の書し列女伝にも、此かく成るはあるまじ。)」¹⁸⁾라고 칭송받고 있다. 이렇듯 우키요조시 속 유녀 및 첩의 감정충실유형은 그 신분적 한계나 현실에 저항하려했을 때 여지없이 좌절적 현실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반해 후지노와 같이 일생을 남성을 위해 희생한 경우에는 칭송받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기녀의 감정충실유형은 어떻게 묘사되는지, 그 일례의 개요를 아래에서 살펴보자.

<옥소선 이야기>

어린 서생과 평양 기녀 옥소선은 깊이 사랑하였는데, 서생의 아버지가 타지로 떠나게 되어 둘은 헤어진다. 이후 옥소선은 새로운 사또를 모셨고, 서생이 찾아오자 둘은 몰래 달아났다. 후에 옥소선의 내조로 서생은 과거에 급제한다.¹⁹⁾

위의 옥소선의 경우, 기녀라는 신분 때문에 서생의 아버지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 여기서 옥소선은 현실적 저항 없이 새로운 사또를 모셨고, 다행히 서생이 찾아와 둘의 관계는 회복된다. <옥소선 이야기>의 경우, 앞서 본 유녀 미나카와와 달리, 여성이 아닌 남성, 즉 서생이 현실에 저항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옥소선의 내조로 서생이 과거 급제 하였고 후에 본부인이 되고 두 아들을 낳아 해로했다고 하는 결말은, 여성이 아닌 남성이 현실에 저항했기에 가능한 결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후지노와 같이 일생을 남성을 위해 희생한 경우는 칭송받는 현실’과 흡사한 경우가, 바로 현실에 저항하지 않았던 옥소선의 모습에서 묘사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여기에 <옥소선 이야기>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월하선전>은 작자 미상의 한글본으로 1876년 이전에 출현한 작품으로서, 조선 후기의 관기 제도과 기녀 관련 풍속을 둘러싼 당대의 세태를 배경으로 애정 욕구의 실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중략) <옥소선이야기>에서는 기녀수

18) 텍스트 p.280

19) (천)17화, (계)권4의 92에 게재되어있다.

청 풍속에 순응하는 옥소선이 그려졌다면 <월하선전>에서는 월하선이 애정회구의 식과 신분상승의식의 자의식을 지닌 인물로 성격이 창조되었음을 말해준다.²⁰⁾

위의 연구를 통해, <옥소선 이야기>는 후에 <월하선전>과 같이, ‘적극적 애정회구의식과 신분상승의식의 자의식’이라는 현실저항의 발현으로 발전되어 갔으리라는 점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야담 속에서도 ‘적극적 애정회구의식과 신분상승의식의 자의식’을 표출한 여성이 묘사되는데, 이는 <일타홍 이야기>에서 확인된다. 그 개요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자.

<일타홍 이야기>

일타홍은 심상공과 어릴 적 만나 사랑을 나누었는데, 심상공이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다시 만나지 않기를 일타홍이 먼저 제안한다. 이에 따라 심상공은 과거에 급제하였고, 이때까지 정절을 지켜온 일타홍은 재회 후 첩이 된다. 일타홍은 자신의 죽을 날을 예견하고 심상공은 아끼는 마음에 손수 염습을 하였다.²¹⁾

일타홍은 옥소선과 달리, 스스로 남성을 위해 이별을 고하고 기다리다가 심상공의 과거 급제 후 마침내 첩이 된다. 그녀의 모습은 현실에 저항했다고 하기 보다는, 지략으로써 현실을 타계해 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 지략이란 바로 ‘적극적 애정회구의식과 신분상승의식의 자의식’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일타홍의 모습을 통해, 현실에 무작정 저항하는 것이 아닌, 지략으로써 스스로의 욕망과 자의식을 성취해 가는 새로운 유형의 여성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감정충실유형을 통해, 우키요조시의 유녀 혹은 첩이 현실에 저항한 경우, 대개 자살, 쇠락 등의 부정적 결과를 맞이하였고, 남성을 위해 희생한 경우는 칭송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야담의 경우, 지략으로써 ‘적극적 애정회구의식과 신분상승의식의 자의식’을 성취한 유형이 출현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키요조시 속 감정충실유형은 주로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묘사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야담 속 감정충실유형은 <옥소선 이야기>와

20) 전계서 『기녀담 기녀등장소설 연구』, pp.285-291

21) (천)18화, (계)권3의 77에 게재되어있다.

같이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묘사된 경우도 있었으나, <일타홍 이야기>와 같이 현실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자신의 욕망과 자의식을 성취해 나아간 새로운 여성상이 묘사되었다고 할 수 있다.

2.1.3 애육에 집착하는 유형

우키요조시와 야담 속에서 애육에 집착하는 여성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 일례로 (무)3.3의 불심이 깊어 결혼 했어도 잠자리를 갖지 않는 언니와 애육에 몰든 여동생의 대조적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이 여동생에 대한 묘사는 다음과 같다.

이에 반해 여동생 오나쓰는 혼마치의 옷가게로 시집갔는데, 아랫사람과의 밀통을 들었다. ‘참을 수 없다’라며 혈기 왕성한 남편이 눈에 불을 켜고 화내자 부모가 (딸을) 여러 모로 혼냈고, 아나카의 조상을 모시는 절의 스님까지 모셔다가 여러 가지 용서를 구하여 세상에 소문나지 않게 했다. 이혼장을 받아 돌아왔는데, 조금도 (딸은) 이를 창피해하지 않고 젊은 가게 관리자와 이리저리 말장난을 친다.²²⁾

위의 오나쓰를 부모는 재혼 시키려고 하는데, 그 전날 밤에 험상 굳게 생긴 남성이 와서 오나쓰와 결혼약속을 했다며 횡포를 부린다. 이에 부모는 남성에게 돈을 쥐어주며 소문이 나지 않게 한다. 이렇듯 거듭되는 오나쓰의 애육에 대한 집착은 의외로 권선징악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않고, “여동생은 (오늘도) 아무런 사고를 치지 않았는가?(妹めは何事も仕出来はせぬか)”²³⁾라고 부모가 조마조마해 하며 무마하는 것으로 결말을 맞이한다. 이처럼 애육에 집착하여도 권선징악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않고 골계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경우는 (무)5.1의 26번 결혼하여 아이를 27명이나 갖는 여성의 이야기, (무)6.1에서 신분이 높은 여성이 바람이 나서 도망 다니며 남자들을 속이는 이야기에서도

22) 長谷川強校注(1989) 『新日本古典文学大系 世間娘気質』岩波書店(이하 텍스트로 삼는다), p.450 「是にかはって妹おなつは、本町の呉服屋へ縁につきしが、下々と密通あらはれ『堪忍せぬ』と血氣づよき息子が、血眼になって腹をたつるを、親々異見し其上に谷中の檀那寺の和尚までをかけて、さまざま謔言して世間沙汰なしに暇の状をもらふて立歸り、すこしも是を恥たる粧もなく、若い手代をとらへてはじゃらじゃらとの転合口。」

23) 텍스트 p.452

확인된다.

한편 (쇼)3.3의 늙어도 자신의 여성성을 포기하지 않는 우지에(宇治江)라는 마이코(舞子) 이야기, (테)1.2, 1.3에서 전개되는 늙어도 애욕에 집착하는 오후루(お春) 이야기, (테)4.1의 사랑하는 남자를 얻기 위해 여우로 변하는 게이코(芸子) 이야기는 여성의 애욕을 초현실적인 세계에서만 실현 가능한 것으로 묘사하였다.²⁴⁾

그러면 야담의 애욕에 집착하는 여성상은 어떤 양상을 띠는지, 그 대강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자.

(어)427화

어릴 적 문장을 성취하고 용모가 빼어났던 정인지를 옆집 처자가 흠모하였는데, 하룻밤은 처자가 담장을 넘어와 그를 가까이 하고자 했다. 정인지가 정색을 하고 거절하자 그 처자가 소리를 질러 알리려 하였다. 정인지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은 후 혼사를 이루도록 하자고 하며 잘 타일렀다. 그러나 정인지는 다른 집으로 옮겨 갔고, 처자는 마음에 상처를 입어 죽었다.

(어)428화

심수경은 젊은 시절 풍채와 거동이 아름다웠고 음악을 잘 알았다. 어느 날 거문고를 탔는데 나이가 젊고 고운 궁녀가 나와 거문고 소리 듣기를 청했다. 심수경은 몇 곡을 타 주고는 다시는 그 집에 거처하지 않았고, 궁녀는 상사병으로 노심초사하다가 끝내 병들어 죽었다.

위의 두 일화의 공통점은 여성이 남성을 흠모하고, 그 마음을 남성이 받아주지 않자 여성은 끝내 병들어 죽었다는 점에 있다. 이렇듯 애욕에 집착하는 야담 속 여성상은 공통적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무)의 애욕에 집착하여도 권선징악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않고 끝계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경우, (쇼)나 (테)의 여성의 애욕이 초현실적인 세계에서

24) 줄고(2007, 8) 「氣質物の変容に関する一考察 - 『世間娘容気』から『世間妾形気』へ-」 『일본문화학보』34집, 한국일본문화학회

줄고(2009.09) 「아키나리(秋成)작 가타기모노(氣質物) 속 인물상의 변모양상 - 기세키(其磧)작 가타기모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42집, 한국일본어문화회

만 실현 가능한 것으로 묘사되는 경우와는 거리가 멀다 하겠다. 즉 야담 속 애육에 집착하는 여성상은 우키요조시 속에서의 골계화와 초현실적 묘사에 비해,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부정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고 볼 수 있다.

2.2 이색적 여성의 갈등

2.2.2 위상적 갈등

우키요조시와 야담 속 이색적 여성 중에는 남성을 압도하는 인물이 있다. 남성에게 순종적인 여성상이 보편적인 봉건제 사회에서, 이는 특기할 만하다 하겠다. 우키요조시의 경우, (무)1.1의 지참금으로 남편을 얻었으나 유모의 손을 떠나지 못하는 부인, (무)1.2의 신분이 높은 사람의 버려진 딸로서 화려한 취향을 지니고 피리의 명수인 부인, (무)1.3의 우둔한 남편 대신에 글을 읽어 생계를 꾸려가는 고급 여관(女官)이었던 부인, (무)2.1의 부모가 무사신분이었고 이 때문에 무사 기질을 발휘하여 남편을 겁먹게 하는 부인, (쇼)4.2의 부자인 로닌(浪人)의 귀한 외동딸 오하시(お橋), (쇼)4.3의 유학자이자 의사인 아버지를 닮아 박학다식한 여성 등이 있다. 이 중, (무)1.3 속 부인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한다.

원래 부인의 필체는 훌륭하고 자유로운 필체라, 힘 있고 흐름이 물과 같아서 이시가키 기온의 유녀들은 끊임없이 (편지의 대필을) 부탁하여 남들은 모르는 돈을 모아 남편을 비롯한 5명의 식구들을 충분히 먹여 살려가고, (중략) ‘중신이 여기 왔습니다요’라며 (남편의) 엉덩이를 찔러 말하게 하니, 웃음거리가 되었다.²⁵⁾

이처럼 우키요조시 속 여성 중에는 이전의 고귀한 신분이나 직업, 현재의 경제적 우위 등을 통해 남편을 압도하는 인물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남편에게 귀속되는 것이 에도시대 여성의 위상인데, 신분적·경제적 조건에 의해, 여성

25) 텍스트 pp.405-409 「元來女筆は優れて自由なる筆の歩み、いさぎよくなる水のごとく、石垣祇園の遊女より暇なくたのみて、人のしらぬ銀をまふけて、亭主をはじめ五人口をゆるりとやしなふてとおりに、(中略) 『年寄是におります』と、尻をついてはしけると、笑ひ種となつてはてけり。」

스스로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남성을 압도하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이에 반해, 야담 속 여성 중 남성을 압도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천)25화

성진사는 재주와 명성이 있었으나 성품이 본래 게으르고 못났다. 그의 아내도 역시 번성한 기문 출신으로 재주와 용모가 빼어났다. 집안을 잘 다스려 남편에게 옷을 지어주고 음식을 만들어 주는 것을 매우 잘하였다. 그러나 다만 그 성질이 사납고 포악하여, 남편이 조금이라도 뜻에 맞지 않으면 문득 꾸짖다가 때리기까지 하니, 성생이 아내를 매우 두려워하여 감히 항거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잡히고 말았다.

(천)60화

연산군이 부녀자를 겁탈하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어떤 선비의 부인만은 연산군의 부름을 받고도 놀리는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거드랑이에 썩은 고기를 끼고 들어가 연산군이 내쳐서 절개를 지킬 수 있었다.

(계)권오134

조태역의 처 심씨는 본래 질투하는 성품이었다. 태역이 그를 호랑이처럼 두려워하였는데, 그 와중에 아끼는 기녀가 있었다. 그녀는 조태역의 처에게 피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하듯이 인사를 올렸다. 처인 심씨가 그녀를 보니 얼굴은 이슬을 머금은 복사꽃 같고, 허리는 바람에 나부끼는 가는 버들가지인데, 비단과 비취 구슬로 위아래를 장식한 모습이 참으로 경국지색이었다. 이를 취하지 않는 자는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심씨는 기녀에게 남편을 허락하되, 탐하지 말라고 이른다.

위의 야담 속 여성은 순서대로 사납고 포악한 성격, 영민함, 사려 깊음 등, 개인의 인성과 지략으로써 남성을 압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키요조시의 경우, 여성의 개인적 의도와는 상관없이 각자가 속한 신분적·경제적 우위에 의해 남성을 압도하는 모습이 묘사되었던 반면, 야담의 경우는 인성과 지략으로써 남성을 압도할 수 있는 여성상이 묘사되었다고 하겠다.

2.2.2 이색적 여성의 경제적 갈등

야담 속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욕망만이 부각되어 묘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고, 경제적 안정은 오로지 남편을

비롯한 남성에게 의해 얻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조선시대에 있어서,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여성들이었기에, 경제적 욕망은 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에도시대 일본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성의 경제적 안정은 주로 남편을 비롯한 남성에게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좋은 예가 (쇼)와 (테)의 일화라고 할 수 있다. (쇼)1.2의 정숙했던 오유후(お木綿)는 남편 사후 딸을 유녀로 만들어 돈을 벌며 악랄해지고, (테)2.3의 오이토(お糸)는 돈을 위해 스님들을 속이며, (테)3.1의 시게노(繁野)는 돈을 위해 남성을 속이지만 결국 들통 나고 만다. 그 중 (쇼)1.2의 오유후의 구체적 양상을 아래에서 살펴보자.

도깨비라고 생각하지만 다가갈 곳이 없는 처지라 눈물을 흘리며 유혹당하고, 자식을 위한 함정이라고 생각하며 어느새 동침하게 된다. 이 또한 하늘이 맺어준 연이라며 사이를 갈라놓았던 담도 부수고 표면적인 부인과 딸로서 술잔을 교환한다. (중략) 부인 오유후도 이런 악한 남자와 엮여서인지 악하게 변하여 성격이 뒤틀리고 돈이 되는 딸이라며 귀엽기만 한 것이 아닌 욕심의 대상으로 본다.²⁶⁾

이처럼 오유후는 경제적 안정의 근원인 남편의 사망을 계기로 경제적 욕망을 표출하게 되는데, 이와 달리 남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욕망을 드러내는 (테)2.3의 오이토를 살펴보자.

오이토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정말로 웃기는 사람들이오 남편이 있는 몸을 잡고 너무 웃기는 말을 하는군. 돌았는지 집을 잘못 찾아왔는지.’라 하며 알면서도 모른 척을 하니, 6명의 스님은 모두 간담이 서늘해지며,²⁷⁾

26) 전게서 『上田秋成初期評釈 諸道聽耳世間猿』 p.46 「鬼と思へど問るれば、かからふ嶋のなき身をば、涙ごかしに濡れられて、子ふゆへの闇にふみかぶり、ついそれなりのころび寝は、これも神の縁結びと、隔の壁も打ぬいて表むきの女房、娘とも親子の盃。(中略)女房おゆふも麻につる蓬ではなふて、松にまつはる捻藤根性に入かはり、銀になる娘じゃと可愛外に欲心魔王、」

27) 텍스트 p.245 「お糸も尖り声にて、ほんにおかしい衆じゃや、ぬしのある身を取らへて、なめ過ぎたものいひ、氣違ひか門たがへかと、みすみす成るいひかたに、六人ながら肝をつぶし、」

오이토는 유부녀임을 숨기고 미모를 이용해서 스님들에게서 경제적 원조를 받아 왔지만, 위와 같이 막상 원하는 만큼의 재물을 얻고서는 스님들을 모른 척 한다. 이와 같이 우키요조시 속에서는 남성의 부재와 상관없이 여성의 경제적 욕망이 묘사되고 있는 점에 반해, 야담 속에서는 이와 같은 여성상이 묘사되지 않는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고 하겠다.

2.2.3 이색적 여성의 성별적 갈등

여성의 경제적 욕망은 우키요조시에서만 묘사되었던 반면, 여성의 울분은 야담 속에서만 묘사된다. 우선 (어)의 울분으로 인한 복수가 묘사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어)48화

투기심이 있었던 문익성의 아내는 남편이 첩을 두는 경우, 자신은 냉수만 마셔 이 때문에 남편이 첩을 두지 못한다고 한다. 이 말을 믿은 이준민의 아내가 냉수만 마시다 죽었다. 문익성의 아내는 실은 몰래 매우 짠 비빔밥을 먹어 냉수만 마시는 것이었다.

(어)45화

아내를 두려워하는 자는 푸른 깃발 아래에, 그렇지 않은 이는 붉은 깃발 아래 서라 하니, 어떤 남자가 붉은 깃발 아래 섰다. 붉은 깃발 아래 선 사내에게 그 연유를 물으니, 그 처가 남자 셋이 모이면 여색을 논하니 그 곳에 가지 말라하여, 붉은 깃발에 선 것이었다.

위의 두 일화 속 여성들은 남편을 믿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각기 냉수 마시기, 남자가 모인 곳에 못 가게 하기 등, 소심한 복수이긴 하지만 그녀들의 일상은 남성에게 신경 쓰는 것, 즉 남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음은 (천)의 복수담이다.

(천)21화

어떤 어사가 스스로의 명성과 지위를 믿고 교만한 태도를 바꾸지 않았는데, 수청 드는 기녀마저도 물리쳤다. 이에 감사와 부운이 피를 내어 어사를 곤경에 빠뜨리고

자 하여, 기녀를 여염집 아낙으로 분장시켜 유혹하게 하였다.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 기녀의 권유로 어사는 늙은 여인의 모습으로 분장한 후 잔치 자리에 함께 갔다. 곧 정체가 탄로 나고 어사는 이튿날 바로 떠났는데, 이때부터 나라에서 버림받았다.

(전)22화

경주의 어떤 제독관이 매번 기녀를 보면 꼭 담뱃대로 톱톱 치고 멸시하는 말을 하니, 기녀와 부윤 모두 제독관을 싫어했다. 그리하여 부윤이 제독을 속일 수 있는 기녀에게 상을 준다고 하자 어린 기녀 하나가 이에 응했다. 기녀는 여염집 아낙 행세를 하고 제독관을 유혹하였다. 그녀의 집에서 제독관은 술잔을 기울이는데, 헤어진 남편이 왔다고 제독관을 벌거벗은 채로 궤 속에 넣어 자물쇠를 채웠다. 그 궤는 관가에 가서 채관을 받으며 톱질을 당했고, 이에 놀란 제독관이 소리를 쳐서 제독관은 웃음거리가 되었다.

위의 일화 속 여성들은 앞서 본 부인들보다 남성들로부터 한층 더 억압받을 수밖에 없는 기녀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그녀들의 복수 또한 한층 더 강화되어, 남성을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리는 것으로 발전한다. 여기서 조선의 기녀에 상응하는 에도시대의 유녀가 있는데, 우키요조시 속에서 ‘왜 유녀의 복수담은 묘사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그 이유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녀는 원칙적으로는 금전이라는 매개를 통해 남성과 교류하기에, 기녀와 같은 일방적 멸시와 억압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는 점이다. 반면 기녀는 조정에서 관리하는 일부 경기(京妓)를 제외하고서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었던 것이 사실이고,²⁸⁾ 위의 (전)의 일화와 같은 지방기(地方妓)의 경우, 남성으로부터의 다양한 멸시와 억압에 시달렸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우키요조시보다는 야담 속에서 기녀의 복수가 묘사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다.

28) 전계서 『기녀담기녀등장소설연구』 pp.32-46에 자세함.

3. 결론

이상의 작업을 통해, 다음의 다섯 가지 측면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우키요조시의 간통담을 통해 일종의 사회적 편견과 부조리에 대한 복수로서 간통을 실행하기에 이르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심경변화를 이해할 수 있었고, 한편 야담 속 간통담을 통해 당대 여성의 지략과 해학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우키요조시와 야담의 유녀, 첩, 기녀의 감정충실유형 중 현실저항유형은 공통적으로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다는 점을 통해, 전근대 한일 양국에서 여성의 감정충실과 현실적 저항은 부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일타홍 이야기>를 통해, 조선후기의 비교적 이른 시기에 여성의 ‘적극적 애정희구의 식과 신분상승의식의 자의식’이 묘사되고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우키요조시 속 여성의 애욕은 그 골계적 묘사와 초현실적 실현가능성을 통해, 전면적으로 부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한편 야담 속 여성의 애욕은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부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우키요조시 속 여성이 남성을 압도하는 경우는 신분적·경제적 우위에 의해 가능했다. 한편 야담 속 여성이 남성을 압도하는 경우는 오로지 개인의 인성과 지략으로써 가능했다. 이를 통해, 남성우위에 서는 여성은 일본에서는 사회적 요건에 의해, 한반도에서는 개인적 능력에 의해 가능했던 것으로 묘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우키요조시 속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욕망이 묘사되었고, 야담에서는 성적으로 차별받는 여성의 사회적 울분이 묘사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우키요조시와 야담 속 이색적 여성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선 우키요조시와 야담 속 이색적 여성상 중 유녀, 첩, 기녀인데 현실에 저항하며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경우, 그 감정과 저항은 부정적인 결말을 맞이하였다. 이는 곧 사회적 신분을 뛰어넘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자 한 여성들에 대한 에도막부(幕府)와 조선왕조의 억압을 의미한다. 다만 야담 <일타홍 이야기>를 통해, 여성의 애정희구의식과 자의식의 실현이 조선 후기에 일부 긍정적으로 묘사되며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우키요조시 속에서 여성의 애욕은 골계화 및 초현실화에 의해 적극적으로 부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야담 속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것으로 묘사되며 부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에도막부 하에서는 여성의 애욕이 일부 묵인되었던 반면, 조선왕조 하에서는 긍정할 수 없는 것이었음을 반증한다.

한편 우키요조시 속에서 사회적 편견과 부조리에 대한 복수로서 간통에 이르는 여성들이 묘사되어 여성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이며, 그 분노는 극단적으로 표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의 편견과 부조리에 대한 극단적 분노는 야담 속에서 다양한 복수로 묘사되었지만, 이때의 복수는 간통과 같은 자멸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역설적으로 에도시대 여성들의 복수는 곧 자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우키요조시와 야담의 남성을 압도하는 유형을 통해, 에도사회는 성차별과는 별개로 신분적·경제적 우위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조선사회는 성차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능력이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키요조시는 여성의 경제적 불안정성, 야담은 성차별에 의한 여성의 불안정성이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녀의 성적 차별과 신분적 차별에 의한 이중의 사회적 박탈감이 묘사되고 있어, 에도사회의 유녀와 조선사회의 기녀의 입지가 상이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해, 전근대 한일 양국의 여성담 속 이색적 여성이 성적, 신분적 차별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갈등을 겪었을 것임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에도사회의 이색적 여성들은 현실적 저항을 위해 간통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한 반면, 조선사회의 이색적 여성들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저항하였던 것으로 묘사되었다. 또한 조선사회의 이색적 여성들이 지략, 해학을 비롯한 개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자아를 실현하고자 한 측면이 작중 인정되었던 반면, 에도사회에서는 여성의 애욕만이 묵인되었던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에도사회와 조선사회가 여성의 성애와 능력을 바라보는 시각 차(差)를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간통이라는 동일한 행위 때문에 에도사회의 여성은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고, 조선사회의 여성은 그 지략과 해학으로써 타계해 나아간다는 점에서, 전자는 상대적으로 이색적 여성들의

현실적 모습을 묘사하였고, 후자는 소설적 낭만성을 투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의 연구 결과는 ‘이색적 여성’이라는 동일한 매개를 통해, 전근대 한일 양국의 픽션이 ‘인간을 어떻게 조명했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실마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즉 에도사회는 이색적 여성들의 현실적 고민과 갈등의 묘사에 보다 치중한 반면, 조선사회는 이색적 여성들의 현실적 고민과 갈등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지략, 해학 등의 능력을 통해 현실을 헤쳐나아가고 성적 한계를 뛰어넘는 이상적 인간상을 조명하였다고 생각한다.

<參考文獻>

- 김동욱, 최상은 공역(2003) 『천예록』 명문당, p.129, p.134, pp.297-298
 신익철 외 3명 옮김(2004) 『어우야담』 돌베개, p.622
 이신성(2001) 『『천예록』소재 여성인물야담성격의 연구』 『東洋漢文學研究』, 15호, 동양한문학회, pp.251-283
 정병헌, 이유경 엮음 (2000) 『한국의 여성영웅소설』 태학사, p.265
 정명기편(2001) 『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 1』 보고서, p.12, pp.54-55
 조광국(2000) 『기녀담기녀등장소설연구』 도서출판 月印, p.14, pp.32-46, pp.285-291
 麻生磯次·富士昭雄編(1983) 『対訳西鶴全集 好色五人女』, 明治書院, p.50, p.58, p.74
 長谷川強校注(1989) 『新日本古典文学大系 世間娘気質』 岩波書店, p.450, p.452, pp.405-409
 深谷克己(2006) 『江戸時代の身分願望』 吉川弘文館, pp.112-116
 森山重雄著(1977) 『上田秋成初期評釈 諸道聴耳世間猿』 国叢刊行会, p.46, p.195, p.245 p.280

접 수 일: 12월 31일

심사완료: 01월 08일

게재결정: 01월 29일

<要旨>

前近代日韓両国の女性談に関する小考

— 朝鮮王朝後期野談と浮世草子の中の異色的女性像を中心に —

本稿は浮世草子と朝鮮王朝後期野談の中の異色的女性像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今回の考察を通して、前近代の日韓両国の女性談の中の異色的女性たちが共に性的、身分的差別を受け、類似する葛藤を経験した事、想像し得た。ただし、浮世草子の異色的女性達は抵抗のために姦通という極端な方法を選んだ反面、野談の異色的女性達は比較的消極的抵抗をしたと見受けられる。また、野談の異色的女性達が知略、諧謔を始め個人的能力を發揮し自我を実現しようとした側面が作中認められた反面、浮世草子では女性の愛欲だけが黙認された傾向があったと見受けられる。これは江戸社会と朝鮮王朝社会の女性の愛欲と能力に関する認識の差異を示唆するものである。また、姦通という同一の行為のために、浮世草子の女性は悲劇的結末を向かえ、野談の女性は知略と諧謔で以て、打開していくという側面で、前者は相対的に異色的女性の現実的な姿を描き、後者は小説的浪漫性を投資したものと見受けられる。

したがって、本稿の研究結果は「異色的女性」という同一の要素を通じて、前近代日韓両国のフィクションが「人間のどの局面を照明したのか」という疑問に関する鍵を得たと考えられる。つまり、浮世草子は異色的女性の現実的苦悩と葛藤の描写に、より重きを置いた反面、野談は異色的女性の現実的苦悩を認めつつも、一方で知略、諧謔を通して現実を克服して行き、性的限界をも越える理想的人間像を照明したと考えられる。